



글 | 김영빈(경남도청 투자유치과 항공산업지원팀장)

I.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배경

경남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클러스터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먼저,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있어 전국 최고의 입지 우위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국내 유일의 항공 완제기 생산업체인 KAI가 소재하고 있고, 삼성테크윈을 비롯한 항공기 부품업체가 80여개나 입지하고 있어 전국 생산량의 83.2%, 사업체 수의 69.1%를 차지하고 있는 등 전국에서 항공우주산업이 가장 특화되어 있다. 그리고, 경상대 부설 항공기부품기술연구소, 창원대 메카트로닉스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의 연구지원 인프라, 경상대, 창원대, 한국폴리텍항공대, 항공기술고등학교 등의 교육 훈련 인프라, 그밖에 공군비행훈련단, 사천공항, 공군교육사령부 등의 간접지원 인프라 등 항공우주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하부 기반이 잘 갖추어져 있다. 또한, 연관산업인 기계산업의 발달로 양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는 점 등 항공우주산업 성장의 토대가 되는 지원기반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다.

둘째, 경남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의 정책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99년 7월에 수립된 산자부 항공우주

산업개발 기본계획, 2004년 2월에 산자부가 수립한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핵심전략산업으로 고시), 2005년 11월 세미나시 발표한 국가4대 성장동력산업 및 경남도가 수립한 산업경제로드맵(주력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반영되어 있으며, 동 산업경제 로드맵은 아시아 태평양 항공우주산업 부품생산기지 및 수출거점으로 육성하고자하는 경남도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담고 있다.

이러한 입지우위 요인과 정책방향을 실현할 목적으로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이끌어 나가고자 한다.

II. 추진현황

1. 클러스터 구축개요

- 위 치 : 사천시 사남면 진사지방산업단지내
- 규 모 : 121,000평
 - ※ KAI, S&K 항공 등 기 입주업체 포함 35만여평 규모
- 사업기간 : 2002~2008년(7년)
 - 항공우주관련 기업체 입주(계약) : 2006년 10월
- 추진방식 : 장기 임대전용산업단지 조성후 저가임대

○ 사업비 : 500억(임대전용 산업단지 조성비)

○ 사업내용 : 항공우주관련 업체, 연구기관 등 유치 및 집적화, networking 사업

2. 임대산업단지 조성으로 클러스터 구축 기반인 기업 집적화 연내 완료

경상남도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우선 2002년 11월 진사단지 내 10만여평에 항공우주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산·학·관 협의회를 구성하여 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동 부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규모의 영세한 항공업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입주를 꺼리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의 해소 방안으로 동 부지를 매입하여 입주를 희망하는 영세 항공업체들에게 저가로 공급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다.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부지매입비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하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타 업종과의 형평성, 법적 지원근거 미비 등을 이유로 국비확보에 실패하였다.

이에 2005년 9월 “선 부지매입 후 임대”가 아닌 “항공우주산업 혁신클러스터 선 지정 후 국비확보” 방향으로 선화하여 추진전략을 다시 수립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과제라고 판단, 2006년 2월 산업연구원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하였다.

용역을 통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려던 중 지난 4월 재정부의 장기 임대전용 산업단지 제도 시행계획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이는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형성이라는 우리도의 지역전략산업 육성방향과 정확하게 부합하였던 것이다.

임대산업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4월 11일~14일 도내 외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또는 팩스로 간이 입주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11만평, 18개사가 입주의사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경남도의 정책방향을 알리고자 재경부를 비롯한 건교부,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경남도의 입장을 설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여 입주업체, 항공우주관련 업체 우선입주 등 임대산단 시행계획에 우리도의 의견이 전적으로 반영되어 6월 19일 진사 1, 2단지 121,000평이 임대산업단지로 예비지정되는 성과를 거두어 수년간 추진해오던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진사 임대산단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과도 수차례 협의를 거쳐 총사업비 500억원 중 지방비를 5% 부담하기로



임대전용단지 현황사진



합의를 끝낸 후 6월 23일 경남도 지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간 MOU를 체결하였으며, 입주공고안에 대한 협의회도 몇 차례 거쳐 7월 3일 입주청약 공고한 결과, 9월 현재 36개의 기업이 245,000평을 신청하여 10월 입주계약을 앞두고 있어 KAI가 소재하고 있는 사천 지역의 항공우주관련기업 집적화는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3. 기간 추진성과

1)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실시

경남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원의 타당한 논거확보를 위해 산업연구원에 사업타당성 용역을 실시한 결과 68.8%의 기업이 클러스터 구축이 필요하고 62개의 기업체 중 21개 업체가 진사 항공우주단지에 입주하겠다는 의향을 밝혀 클러스터 구축의 기대효과와 향후 정책과제 등이 제시되었다.

2)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경남 이전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클러스터가 빠르고 쉽게 구축되기 위해서는 핵심선도기업과 정부의 육성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유치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2005년 상반기에 KAI 본사와 대전연구소가 이전을 하고 금년 9월에는 창원공장도 이전함에 따라 사천으로 일원화 하게 되었다. KAI는 우리도의 해외 항공우주업체 유치를 위한 해외 IR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많은 사업 부분을 중소 협력업체에 outsourcing 하고 있다.

3) 산학관 협의회 확대 재구성 및 유기적 협조강화

항공우주산업 집적단지 조성을 위한 협의회를 통하여 정보교환과 클러스터 구축에 핵심적인 기업체를 사천지역으로 집적화 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이 조직을 2006년 상반기에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추진 협의회]로 확대 재구성하여 클러스터 구축방향, 추진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등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향후 이 협의회를 확대 발전시켜 “항공우주산업 육성 협의회”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4) 진사단지 내 경남 항공우주지원센터 건립

현재 진사단지내에 경남도 출자기관인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국비 및 지방비 등 사업비 138억원을 들여 2,400평 규모의 항공우주 지원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항공우주지원센터는 항공우주 산·학·연 네트워크,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시험분석, 측정·평가 장비, 산업체 애로공정 공동장비 지원 등 항공우주산업 지원 인프라와 클러스터 운영기반 구축을 통해 항공우주산업 역량 개선과 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다.

5)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항공우주산업의 중심도시인 사천에서는 해마다 10월이면 산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항공우주엑스포가 진사단지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 엑스포에서는 전국모형항공기대회, 에어쇼, 항공우주심포지엄 등 항공우주와 관련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되어 매년 40만의 관광객을 불러들일 만큼 성공적이다.

III. 발전비전 및 전망

1. 발전비전

2005년 경남도에서 수립한 산업경제분야 뉴경남건설 로드맵에 의하면 경남 항공우주산업 육성 목표를 한국의 항공우주 중심 산업단지 및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항공우주 부품기지 구축에 두고



경남항공우주지원센터 조감도

동북아시아 항공우주산업 생산중심도시 실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 클러스터 구축 기대효과

임대전용 산업단지에 기업체의 입주가 완료되어 클러스터가 형성되면, 그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2015년 항공기 부품 수출액이 8억 3천만 달러에 이를 것이고, 매출액은 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되면 항공분야 부품 총 수출의 45%를 클러스터 입주업체가 담당하게 될 것이며, 명실상부한 항공우주산업 부품 생산 및 수출 핵심 클러스터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기에 KAI의 예상매출액을 더하면 그 규모는 2조 5천억원에서 3조에 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항공우주산업 집적단지의 조성은 임대단지에 입주한 기업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항공우주분야의 혁신 클러스터 구축을 촉진시켜 신기술 개발 및 기술혁신이 용이해지는 등 기술개발의 시너지 효과가 예상되며, 지식기반 기계산업과 연관하여 차세대 성장축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

IV. 경남 항공우주산업의 발전과제

산자부가 제시한 2020 항공선진국 G8 진입 달성을 위해서 향후 중앙정부 및 경남도가 설정해야 할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본다.

1. 중앙정부의 과제

1) 완제기와 부품산업간 동반성장 유도

항공우주산업의 균형발전 도모와 완제기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완제기와 부품산업간 동반성장을 유도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체계종합 중심의 개발사업 지원에서 핵심부품의 국내 개발을 통한 부품단가 인하로 완제기의 해외시장에서의 가격경쟁

력을 높여야 할 것이다.

2) 국산화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부품개발 정책

국산화율 저조는 부품산업 낙후로 직결된다. 따라서 완제품 개발 계획 수립시 부품 국산화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국산화율 제고정책을 통해 기술력, 잠재력이 높고, 첨단기술 개발의지가 높은 중소기업체들의 진입기반을 넓혀 줄 수가 있다.

3) 절충교역 물량에 대한 혁신형 중소기업의 참여확대 적극 유도

현재 대기업과 정부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는 군용기 정부구매 물량 및 여객기 수입에 따른 절충교역 물량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절충교역 물량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구조가 높은 대기업 보다는 기술잠재력은 충분하나 상대적으로 저비용구조인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중소기업들의 해외항공기부품 공동 수주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항공우주산업의 균형발전과 허브기반 강화를 위해 경남을 부품개발 및 생산중심의 핵심거점 클러스터로 조성해야 하며, 경남항공우주 클러스터가 부품수출의 핵심거점 클러스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전문업체들로부터 부품을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잠재력을 갖춘 혁신형 중소기업들이 원활한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외수주를 위한 수출전문 지원업체인 “항공우주수출지원단”(가칭)을 설립해야 한다.

2. 경남도의 과제

1) KARI 분원 유치 등 관련인프라 구축 적극 지원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와 효율적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KARI 분원을 유치해야 한다. 정부 R&D 연구소로는 창원에 위치한 기계기술연구소가 있으나, 동 기관의 활동과 역할이 미미하여 기업들의 장기적 경쟁우위 창출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기업들의 R&D 활동을 지원하거나 개발을 대행하며, 부품생산 및 수출에 필요한 시험평가 및 인증기능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항공우주 전문 연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현재 대덕에 위치한 KARI가 이와 같은 기능 및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사천-대전간의 거리 제약으로 기업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교육인프라 기능 강화를 위해 경기도 소재의 항공대학교 등 관련교육기관의 지역내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것이다.

2) 항공우주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단 설립

클러스터 내 또는 지역내 연관기능간의 네트워크를 주도할 “항공우주산업 혁신클러스터 추진단”의 설립이 필요하다. 효율적 클러스터 운영을 위한 동 기관 설립을 통해 단지의 체계적 개발과 운영, 관리를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추진단이 중심이 되어 입주업체간 또는 관련기능간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입주업체들의 기술개발 및 수출단계에서의 애로점을 파악, 중앙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3)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항공우주 수출지원단” 설립 적극 검토

경남을 부품수출 거점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해외수주 활동을 적극 전개할 수 있는 부품해외수주 영업전문기업을 설립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항공우주분야의 해외 영업경험이 많은 영업전문가와 비용산정 전문가, 엔지니어를 주축으로 입주업체들이 경쟁력 높은 부품을 생산, 수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항공우주산업 혁신클러스터 지정

현재 정부가 기존산업단지의 혁신역량강화를 위해 전국 7개 산업단지를 시범단지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바, 경남 항공우주산업클러스터도 혁신클러스터로 지정받아 기 지정된 시범단지 및 지역사업과 연계하는 등 혁신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5) 항공우주부품박람회 개최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지속 지원 및 동 지역 기반시설 보완 등을 통해 향후 항공우주부품박람회 개최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 2020 항공우주 G8 진입을 경남에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경남은 산업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자동차의 10배가 넘는 부품이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의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구축 안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경남도의 발전 비전 실현을 위해 클러스터 구축에 필수 요소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분원 유치와 한국항공대 비행교육원 이전, 수출지원단 및 항공우주 클러스터 추진단 구성 등 앞으로도 풀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러한 과제들은 중앙정부와 해당기업, 연구기관, 학교 등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조와 지원을 통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전략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 2020년 G8 항공우주 선진국 진입의 꿈은 반드시 실현되리라고 본다. ☺

* 본 내용은 <항공우주>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